

한동훈 험지 공약 '총선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역 없는 지역구 중 총선·대선 득표서 탈환 가능성 있는 지역 방면 내일 부산 북구·경남 남해... 15일 순천, 광주 동·남구, 전북 전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현역 의원이 없는 험지 또는 격전지로 지역방면 일정을 집중하면서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한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찾는다. 두 자치구에는 모두 갑·을 2석씩 총 4석의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빼앗긴 곳들이다.

전날 방문한 경기 고양역시 갑·을·정·병 4석 모두 야당(민주당 3석, 녹색정의당 1석)이 차지하고 있다. 14일 방문 예정인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역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다.

15일에는 민주당 '덧발' 호남(전남 순천, 광주 동·남구, 전북 전주)을, 16일에는 경기 평택에 간다. 호남의 국민의힘 의석은 '0석', 평택은 2석 중 1석이다. 언뜻 '맨땅에 헤딩'처럼 보이지만 4년 전 총선과 비교해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구의 최근 선거 결과 추이에 따라 탈환

가능성이 엮이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 벨트'에 속한 영등포·양천은 꽤 괜찮은 편이다.

영등포는 지난 두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으나, 2022년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연이어 민주당을 앞섰다.

양천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1석(양천을)을 얻었다가 21대 총선에서 2석 모두 민주당에 내줬으나,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고양·평택 등 수도권권의 경우 사정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고양은 20·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4개 지역구 모두 야당이 싹쓸이했고, 지난 대선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덕양구(고양 갑·을)와 일산서구(고양병)는 모두 민주당 득표율이 앞섰으나, 일산서구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여야 득표 차가 0.2%포인트(p)에 그쳤다.

평택은 20대 총선에서 갑·을 2석 모두 확보했다

가 21대 총선에서 1석(갑)을 내준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으나, 같은 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최근에는 신설 지역구 '평택병'에 평택을 3선 유 의동 의원이 도전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벨트'로 묶여 있어 3석 싹쓸이까지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 벨트'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도 탈환을 베푸는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에 서병수 의원을, 경남 김해에 조해진 의원을 각각 배치했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호남에서도 일부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광주 동남에 출마하는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순천·광양·곡성·구례) 이정현 의원님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들리고 있고요. 저도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 바람을 더 일으켜 봐야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총선 공약 화두는 저출생·기후 위기

여야, 10대 공약 각각 발표... 소상공인 지원 등 담야

여야가 12일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국가가 직면한 문제, 청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10 총선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저출생 대책, 돌봄, 기후위기 대응 등 생활 밀착형 10대 공약을 내놨다.

10대 분야는 ▲일·가족 모두 행복 ▲충만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서민·소상공인 등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서민 경제 활력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도 이날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대 가치를 바탕으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분야는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헌법 개정 등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

/김해나 기자 khn@

'5·18 폼페이' 국힘 도태후 후보 박탈 촉구

민주 광주시당 성명...국힘, 공관위 회의서 결론 못내

광주지역 정치권이 '5·18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도태후 중남구 후보의 후보자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도태후는 5년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 5·18을 확실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는 막말을 퍼부은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5·18 폼페이와 막말은 국가가 인정할 5·18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도태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태후 후보를 공천하고자 했던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그나마 공천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국민 눈높이에서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오월여머니집도 12일 입장문을 내고 "도태후 변호사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국민을 대표해 국회로 갈 사람이 아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의 과거 발언을 공천 검증과정에서 확인도 안하고 공천을 줬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도태후 후보에 대한 문제를 두고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KTX 시대 열겠다'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2일 '서울-부산-제주'를 잇는 해남·완도·진도 K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호남선 KTX 2단계 노선 확정과 예산 확보, 남해안철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고 호남선 KTX 증편 경험을 살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섬과 다리' 전문가로서 연도교, 연륙교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원장은 "호남은 민심이 곧 당성이기에 국민 여러분이 당원이고 당원이 군민"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 승리와 본선 승리를 통해 해남·완도·진도를 대표하는 야부진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해남·완도·진도 지역구를 정치·



경제 모두 으뜸인 '남도 1번지'로 만들겠다"며 "존재감 없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힘을 실어빠르게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출생기 본소득 도입 ▲농수산물 피해 보상 체계 현실화·내실화 ▲다문화가정, 계절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현안 지원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호남본부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180석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아무렇게 싸운 민주당의 '빅 스피커'가 누구인지 판단해달라"며 "민주당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민의힘 선대위 '5인 체제' 가동

한동훈 총괄...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합류

국민의힘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에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등 4명의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5인 체제'로 꾸려졌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중앙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현재 당 지도부 '투톱'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외에 나경원(서울 동작) 전 의원, 안철수(경기 분당갑) 의원, 원희룡(인천

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도권에서 직접 뛰고 있는 중량급 인사들을 더한 것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 경기 안철수, 인천 원희룡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중앙선대위 운영 전반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위원장이 원톱이고 나머지 4명이 함께 보조를 맞추는 선대위 체제"라며 "한 위원장이 모든 지역을 다 다닌다 어렵기 때문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지역에서, 전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안 의원과 나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분이든 모아서 함께 가겠다"며 "앞으로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추후에도 선대위에 추가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나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 과정에 대해서 "동작을 지키겠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포포나무	제릭스 빅걸 리만스 달라이트 마리아스 조이	선플라워×샌도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프로리픽×샌도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인파기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전나무	민업나무 가시없는 업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갑을농원 모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담 및 수목장 수목파 종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